

禪雲寺板〈釋氏源流〉의 刊行事實

Publication Fact of Seonunsa Temple Version of *Seokssiwonryu*

송 일 기 (Il-Gie Song)*

목 차

- | | |
|-------------|-------------|
| 1. 緒 言 | 4. 板刻年代의 檢討 |
| 2. 禪雲寺의 事蹟記 | 5. 結 言 |
| 3. 刊行主體의 分析 | |

초 록

중국 명대에 간행된 『석씨원류』는 우리나라에서 불암사와 선운사에서 2회 간행되었다. 그런데 불암사판은 간기가 분명하여 판각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이에 비해 선운사판은 간기에 간행사찰만 명시되어 그 판각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선운사의 사적기와 국립도서관 소장본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종래 통용되고 있는 1648년이 아니라 1710년에 판각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ABSTRACT

Seokssiwonryu originally published in China's Ming Dynasty was published twice in our country. While the engraved period of Bulamsa Temple version was clearly known from its obvious colophon indication, that of Seonunsa Temple version was not clearly identified with its colophon mentioning only its publishing temple.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relevant data such as Seonunsa Temple's history of its records and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as a result found a new fact that it had been engraved in 1710 not in 1649 as previously known.

키워드: 석씨원류, 영락제, 선운사판, 선운사사적, 동감계, 판각비용, 현익

Seokssiwonryu, Seonunsa Temple Version, Seonunsa Records, The Emperor Yong Le, Hyenig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논문접수일자: 2014년 4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5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241-257,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2.241]

1. 緒言

이 책은 석가의 일대기와 불법(佛法)이 중국에 전래한 이후 원나라까지의 유통에 관한 사실을 글로 쓰고 여기에 민중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배치하여 목판으로 간행 것이다. 중국 명나라 홍희(洪熙) 1년(1425)에 사명(四明, 현재 寧波市 부근) 출신의 대보은사(大報恩寺) 스님인 보성(寶成)이 편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편의 내용은 『석가여래응화록(釋迦如來應化錄)』이란 불전(佛傳) 문헌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또한 이미 중국에 영락(永樂) 말년인 1423년 판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저자 문제에 있어서 자못 의문이 든다(鄭振鐸 2006, 32).

전체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편제를 보면 실은 상편 2권과 하편 2권으로 구분되며, 각 권당 100편 정도의 일화가 수록되어 모두 400여 편으로 편찬되었다. 상편 2권은 인도에서 성립된 불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석가모니의 출생 이전의 인연으로부터 석가모니의 출생 이후의 다양한 행적을 다룬 『석가보(釋迦譜)』와 주요 경전의 설법, 석가모니 열반 이후 불교 교단의 동향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편 2권은 중국에 불교가 수용되기 이전의 불법과 관련된 일화로부터 불교가 전래된 이후 원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불교의 주요 유통과 해당 인물에 관한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이 책은 특정 조사(祖師)의 사상을 담은 저술이 아니라, 『불조통기(佛祖通記)』 등 여러 불교 사전(史傳) 관계 문헌에서 두루 선별하여 편찬한 것으로 가급적 특정 종파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고 일반 민중이 불법을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 중심의 글과 도상을 수록한 대중교화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이 편찬된 중국 명나라에서는 영락제(永樂帝)로부터 가정제(嘉靖帝)에 이르기까지 4차에 걸쳐 간행되어 황실은 물론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다.

이때 명나라에서 간행된 책은 본문의 편집 방식에 따라 크게 2종류로 구분되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전기부터 중국본을 입수하는 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중 현전하는 판본은 조선 후기 불암사와 선운사에서 간행한 2종만 알려져 있다.

類型	中國本		韓國本
上圖下文	永樂本 (1423년)	嘉靖本 (1556년)	禪雲寺本 (1708년)
前圖後文	景泰本 (1450년)	成化本 (1486년)	佛岩寺本 (1673년)

이와 같이 본래 중국 명나라에서 간행된 이 책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명나라 판본을 입수하여 조선후기에 불암사(佛岩寺)와 선운사(禪雲寺)에서 두 번이나 거듭 간행되었다. 그렇지만 이 2종의 판본은 본문의 내용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동일하나 편찬체제는 아주 다르다. 먼저 불암사본은 인경본(印經本)을 기준으로 앞쪽에 그림이 뒤에 본문 내용을 배치한 ‘前圖後文’의 형식이며, 선운사본은 위편에 그림을 두고 아래편에 본문을 배치한 ‘上圖下文’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성방식으로 보아 불암사본은 중국 명대의 경태본 계통이며, 선운사본은 영락본 계통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2종의 판각연대를 고찰하기 위해서 간기(刊記)를 살펴보면, 불암사판의 경우는 간기에 '康熙12(1673)年'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선운사판은 판각시기가 누락된 채 '兜率山禪雲寺開板'으로 사찰명만 기재되어 있어 연대 추정에 문제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선운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권수의 하호연(河浩然) 서문과 권말의 현익(玄益) 발문이 작성된 연대인 '崇禎後戊子'를 근거로 선행의 저술과 연구에서는 모두 이를 1648년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필자는 선운사의 사적기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서 기존설과는 다른 사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운사판의 판각시기를 밝히기 위해 선운사에 소장되어 있는 〈선운사사적(禪雲寺事蹟)〉 3책을 살펴 이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서 그 판각시기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선운사판에는 특이하게도 판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일정부분 비용을 충당한 동갑계원의 명단인 〈갑회조연공덕방명질(甲會助緣功德芳名秩)〉이 수록되어 있어 그들의 보사(補寺) 활동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갑계 자료를 대상으로 세부 내용을 분석하여 그들이 판각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일면을 밝혀 보고자 한다. 그 외에도 선운사본에는 인출용 목판을 제작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회귀한 실례가 판각되어 있어 조선시대 사찰본의 간행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禪雲寺의 事蹟記

고창 선운사에 소장되어 있는 사적기는 정유재란으로 사찰의 주요 건물이 소실된 이후 여러 시기에 걸쳐 전각의 중창과 경관의 판각 사실 등에 대해서 일지 형식으로 남긴 기록으로 필사본 전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운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신라의 진흥왕이 창건했다는 설과 백제의 고승 검단(黔丹)이 577년(위덕왕 24)에 창건했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나 대체로 백제 무왕 무렵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뒤 고려 말 1354년(공민왕 3)에 효정(孝正)이 중수하였고, 1472년(성종 3)부터 10여 년 동안 극유(克乳)에 의해 크게 중창되었다. 그는 1473년 2월 제자 종념(終念)과 함께 상경하여 성종의 숙부 덕원군(德源君)이 쓴 원문(願文)을 얻어 중창을 시작하여 1474년에는 2층의 장륙전(丈六殿)과 관음전(觀音殿)을 짓고, 1475년 봄에는 선왕선가(先王仙駕)를 위한 수륙재(水陸齋)를 크게 열었다. 그 후에도 1476년에 천불대광명전(千佛大光明殿)을 조성하였고, 1481년에는 모든 건물이 단청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지장전(地藏殿)·동상실(東上室)·금당(金堂)·능인전(能仁殿) 등을 짓고, 또한 영산회(靈山會) 등 53불회탱(五十三佛會幀)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10여 년에 걸친 극유의 중창불사로 건물이 189채나 되는 웅장한 규모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에 어실(御室)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리하여 1608년(광해군 즉위년)부터 1609년에 이르는 2년 동안 승려 수십 명이 선방(禪

房) 한두 개 소를 먼저 지은 뒤 몇 년 동안에 법당 3칸을 지었다. 1613년(광해군 5) 봄에 태수 송석조(宋碩祚)가 일관(一寬)에게 중창을 부탁하자 일관은 원준(元俊)과 더불어 수많은 집을 돌며 시주를 모았다. 그리고 어실의 보수를 구실로 고창 문수리에서 재목을 얻어 먼저 보전(寶殿) 5칸을 세운 다음, 상·하 누각과 동·서 양실(兩室)을 건립하였다. 이때의 중창은 6년 만인 1619년에 끝을 맺었다. 그 뒤 1707년(숙종 33)에 이르기까지 일관·원준 등의 선사들이 서로 계승하여 거듭 건물을 세우고 화상을 조성하는 등의 불사를 계속하였다.

1698년에 김우항(金宇杭)이 쓴 〈선운사중신기(禪雲寺重新記)〉에는 당시 중수에 참여하고 선운사에 살고 있던 대중 260여 명을 기록해두고 있다. 이 기록은 당시의 사찰규모와 조직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또한 1707년에는 현익(玄益)이 〈도솔산선운사창수승적기(兜率山禪雲寺創修勝蹟記)〉를 지었다. 조선후기 1839년(헌종 5) 비로 인해 법당 오른쪽 2칸이 무너졌다. 이에 찬성(贊誠)·의홍(義弘)·성찬(誠贊) 등이 법당과 향운전(香雲殿)을 수리하고 정문(正門)의 기와를 갈았는데, 1840년 가을에 중수를 마쳤다. 이때의 중수내역은 기정진(奇正鎭)이 〈무장현선운사대법당사적기(茂長縣禪雲寺大法堂事蹟記)〉에 기록하여 남겼다.

선운사에는 이러한 중창의 사적을 기록한 자료가 전래되고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사적기는 제1책 『선운사적(禪雲寺蹟)』, 제2책 『운사고적(雲寺古蹟)』, 제3책 『선운사사적(禪雲寺事蹟)』 등 3책으로 모두 필사 작성된 것이다.

■ 제1책 『禪雲寺蹟』

이 책은 표지를 포함하여 29장으로 되어 있으나, 앞부분의 6장 정도가 반쯤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전후의 표지는 무늬가 없는 비단을 사용하여 제책하였으나, 현재는 묶은 실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해책(解冊)된 상태이다. 표제는 '禪雲寺蹟'이라 묵서되어 있으며, 크기는 70.8cm×47.5cm이다. 이 사적기의 내용은 선운사 각 건물의 규모와 건물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불화·경전·기타 불구(佛具) 등을 충실하게 기록한 일종의 물목(物目)과 같은 성격이다. 이 자료의 후미에는 '乾隆11年丙寅春2月日時任列名'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사적기의 작성에 참여했거나 이 사실을 증명할 만한 인물들의 이름이 직위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보아 사적기의 최종 작성 연대는 시임(時任) 명단을 기재했던 1746년(영조 22) 봄으로 판단된다.

■ 제2책 『雲寺古蹟』

두 번째 사적기는 제명이 '雲寺古蹟'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선운사의 '禪'자를 생략한 체 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 역시 표지는 무늬가 없는 비단을 사용하여 제책하였으나, 현재는 완전히 해책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제는 '雲寺古蹟'으로 묵서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上之20年月日重修'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 책은 표지를 포함하여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68.6×48.2cm이다. 여기에는 1707년(숙종 33)에 능허(凌虛) 후인이 쓴 〈도솔산선운사창수승적기(兜率山禪雲寺創修勝蹟記)〉와 계사년(癸巳年) 5월에 쓴 〈사중대종명(寺中大鐘銘)〉, 그리고 1614년(광해군 6)에

서 1840년까지 작성된 〈전각요사창건연대방명
열목(殿閣寮舍創建年代芳名列目)〉 등이 실
려 있다. 이 자료에는 17세기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선운사의 건물 증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어, 선운사의 중창 역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방증자료이다. 다음에 〈列
目〉에 보이는 전각을 건물로 구분하여 시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당〉

1614년 봄 창건, 화주(化主) 원준.
1618년 봄 기와 및 수장(修粧), 화주 일관(一寬).
1619년 가을 단청, 화주 심우(心佑).
1620년 봄 향운각(香雲閣) 창건.
1633년 봄 불상삼존 조성.
1634년 가을에 봉안, 화주 법정(法淨).
1648년 여름 불상 도금, 화주 담형(淡迥).
1661년 봄 개와(改瓦), 화주 의운(儀雲).
1688년 봄 단청, 화주 경탄(敬坦). 후불탱(後佛幀),
화주 일진(一眞), 별좌(別座) 법안(法眼).
1697년 봄 개와, 화주 극현(克玄), 별좌 삼정(三淨).
1839년 5월 큰 비에 법당 오른쪽 2칸 무너짐.
1840년 봄·여름 보수 및 단청, 화주 성찬.

〈천불전(千佛殿)〉

1618년 봄 창건, 화주 영일(靈日).
1668년 봄 천불(千佛) 조상, 별좌 대해(大海). 도괘
불탱(圖掛佛幀), 별좌 혜정(慧淨). 개와, 화
주 사준(思俊).
1677년 봄 중창, 화주 쌍운(雙運).
1678년 가을 단청, 화주 덕기(德起).
1840년 8월 법당이 상하여 오래 보존을 기할 수 없어
석상화탱(石像畵幀)을 봉안.

〈시왕전(十王殿)〉

1675년 봄 창건, 화주 덕문(德文).
1676년 가을 개와, 화주 해준(海俊).
1669년 봄 수장, 화주 찬휘(贊輝).
1670년 봄 단청, 화주 사우(思佑).
1676년 5월 시왕상(十王像) 봉안, 화주 극호(克浩).
1680년 봄 중창, 화주 선열(禪悅).

〈나한전(羅漢殿)〉 및 〈영자전(影子殿)〉

1677년 봄 창건, 화주 유선(惟善), 별좌 천호.
1681년 봄 나한존상(羅漢尊像), 화주 명월(明月).
1681년 가을 단청, 화주 성해(性海).
1694년 봄 제공전(諸公殿) 개와, 화주 경탄.

〈정문(正門)〉

1620년 봄 창건, 화주 요의(了義). 단청, 화주 태연
(太衍).
1680년 봄 중창, 화주 혜정(慧淨). 개와, 화주 사우
(思佑).
1689년 봄 단청, 화주 경탄.
1690년 봄 좌우제석탱(左右帝釋幀), 화주 일진.

〈천왕문(天王門)〉

1624년 봄 창건, 화주 지정(智晶).
1674년 봄 수장, 화주 종민(宗敏). 단청, 화주 법안.
1669년 봄 개와, 화주 지휘(智輝).
1680년 봄 천왕등상(天王等像), 화주 사준(思俊).

〈팔상전(八相殿)〉

1706년 봄 창건, 화주 행성(幸性). 팔상탱(八相幀),
화주 심경(心鏡).
1707년 봄 수장·삼존등상(三尊等像)·단청, 화주
심경.

〈향적전(香積殿)〉

창건 화주 승민(崇敏), 중창 화주 홍열(弘悅).
1690년 개와, 화주 계순(戒淳).

〈진정당(眞淨堂)〉

1658년 봄 중창, 화주 인종(印宗).

〈약사전(藥師殿)〉

1675년 봄 창건, 화주 사준(思俊).

〈극락전(極樂殿)〉

1678년 봄 창건, 화주 성혜(性惠).

〈부도전(浮屠殿)〉

1619년 봄 창건, 화주 탄혜(坦惠).

〈부도암(浮屠庵)〉

1620년 창건, 화주 계수(戒修).
1713년 여름 중창, 화주 조인(祖印) 별좌 희원(希遠).

〈능인전(能仁殿)〉

창건 화주 각현(覺玄). 1673년 봄 창건 화주 계환
(戒環).

〈대승전(大乘殿)〉

1691년 봄 창건, 화주 선우(善佑).
1711년 봄 珍島 賀來改 造成 화주검별좌 태웅(太雄).

〈해납료(海納寮)〉 · 〈삼선료(三仙寮)〉

1659년 봄 창건, 화주 승초(勝楚).

〈칠성료(七星寮)〉 · 〈청심료(淸心寮)〉

1682년 봄 창건, 화주 해집(海輯).

〈관음전(觀音殿)〉

1705년 봄 창건, 화주 영택(靈擇).

〈양계료(養鷄寮)〉 · 〈양봉료(養鳳寮)〉

1705년 봄 창건, 화주 태초(太初) · 법충(法聰).

〈대종(大鐘)〉 · 〈중종(中鐘)〉

1701년 봄 주성(鑄成), 화주 희원(希遠).

〈상고(象鼓)〉

1701년 봄 조성, 화주 설화(雪和) · 경준(敬俊), 별좌
두성(斗性).

〈승당(僧堂)〉

1656년 봄 개건(改建), 화주 육수(陸修).
1666년 가을 개와, 화주 정행(淨行). 단청, 화주 명안
(明眼).

〈지장전(地藏殿)〉

1618년 봄 창건, 화주 웅민(雄敏).
1666년 가을 개와, 화주 옥능(玉能) · 삼각(三覺).

〈동상실(東上室)〉

1618년 봄 창건, 화주 건우(見佑).
1646년 가을 중창, 화주 정학(淨學).
1711년 봄 중창, 화주 검 별좌 영각(靈覺).

〈청심료(淸心寮)〉

1760년 봄 중창, 화주 치경(致敬) 별좌가선 성준(性俊).

이 사적기의 끝 부분에 보면, ‘乾隆11(1746)
年丙寅季夏上澣 改爲傳膳而筆墨俱惡 字劃
不精 然徒事實而已 時任維那就英’이란 기록

이 보이고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제1책이 성안(成案)되었던 1746년에 취영(就英) 등이 사중에 전해 오던 자료를 바탕으로 삼아 여기에 제3책의 수정과 증보된 사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로도 중수(重修)가 이루어진 전각에 대해서는 도광(道光) 연간까지 부분적으로 추가한 사실이 보이고 있다.

■ 제3책 『禪雲寺事蹟』

이 사적기에는 특별한 서명이 보이지 않고 있으나, 권수에 ‘禪雲寺事蹟序’라는 서제(序題)가 보이고 있어 이를 이 책의 이름으로 삼았다. 표지는 두터운 장지(壯紙)를 이용하여 제책을 하였으며, 표제를 쓴 듯 하나 의도적으로 찢어버린 듯하다. 이 책은 표지를 포함하여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64.5×49.3cm이다. 이 책에는 능허(凌虛) 후인 현익(玄益)이 1707년(숙종 33)에 쓴 〈선운사사적서〉를 비롯하여 또한 같은 해에 능허 후인이 쓴 〈도솔산선운사창수승적기(兜率山禪雲寺創修勝蹟記)〉와 〈사중대종명(寺中大鐘銘)〉, 그리고 1614년(광해군 6)부터 작성된 〈전각요사창건연대방명열목(殿閣寮舍創建年代芳名列目)〉 등이 실려 있다.

그리고 후미에는 1483년에 쓴 〈덕원군별원당선운산선운사중창산세사적형지안(德源君別願堂禪雲山禪雲寺重創山勢事蹟形止案)〉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말미에 ‘乾隆15年辛未(1751)9月初6日夜間 忽於失火’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사적 중에 가장 늦은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은 후대에 여백지를 이용하여 작성

된 것으로 필체가 확연하게 다르며, 대체로 옹정(擁正) 9(1731)년까지의 사적이 1차적으로 작성된 이후 도광연간까지의 사적이 협주형식으로 증보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형지안〉을 제외하면 대체로 제2책에 수록된 사적과 일치되고 있다. 따라서 제2책의 사적기는 제3책을 저본으로 재차 수정 작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3책의 사적기는 조선시대 정유재란 직후 이래 선운사와 관련된 상세한 사적을 전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선운사의 전각 중수 및 관련 불교문화재의 편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3. 刊行主體의 分析

선운사본의 간행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의 연구에 잘 알려져 있다(최연식 1998). 그 간행과정에 대해서는 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하호연(河浩然)의 서문과 선운사 승려 현익(玄益)의 발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명대사(四溟大師) 송운(松雲)이 이 책을 간행하여 유포시켰는데, 점차 책을 구하기 힘들게 되자 모악산(母嶽山)의 승려 해운(海雲) 법사와 거사 최서용(崔瑞龍)이 선운사 승려의 도움을 받아 목판에 판각하여 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¹⁾

그런데 선운사에서는 이 책을 간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갑계(甲契)를 조직하여 비용을 충당하였던 특이한 사실이 권말에 수록되어 있는 〈갑회조연공덕방명질(甲會助緣功德芳名秩)〉을 통해 그 전모를 확인해

볼 수 있다.²⁾ 이러한 사실은 권말의 현익 발문 계원 명단 479인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 ‘甲戌甲’, ‘丙子甲’ 등 출생연도 순서로 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同甲契員の 수록내용

生年	名單	名數	生年	名單	名數
甲戌 1634 76세	元海, 敬坦, 格祖, 惟善	4	丁(未) 1667 43세	永惠, 永信, 敬天, 李九天	4
丙子 1636 74세	心鏡, 太敬	2	壬子 1672 38세	宗衍, 仁守, 德連, 法天, 天性, 自靈, 淳習, 惟敬, 就迪, 振祐, 贊尙, 性天, 文時元	13
戊寅 1638 72세	克賢, 處定, 哲仁, 天浩	4	甲寅 1674 36세	一能, 性悅, 勝海, 儀還, 天悟, 世含, 敬揖, 靈眞, 已清, 權永万, 太浩, 儀聰, 敬聰, 敬一, 廣逢, 世眼, 信悅, 希遲	18
丙戌 1646 64세	德云, 敬云, 朴敏永, 李勝遠, 金海文	5	戊午 1678 32세	若行, 升浩, 道訓, 若贊, 浩林, 智行, 道先, 敬訓, 芾數, 思敏, 靈云, 性岑, 眞浩, 明贊, 石連, 克行, 德林, 先民, 智一, 覺祖, 儀英, 應全, 升熙, 允機, 自順, 敏浩, 克英, 元贊, 德河, 敬俊, 德行, 升玉, 敬行, 玉均, 如玉, 明揖, 斗玉, 敬遊, 日英, 道和, 信悅, 天敏, 守海, 祖英, 道岑, 石玄, 已性, 宗一, 世閑, 法行, 進明, 靈和, 敏淨, 克閑, 覺尙, 思信, 一宗, 自訓, 學能, 敏訓, 尙學, 先定, 坦一, 元覺, 摠信, 敬眞, 尙宗, 坦靈, 覺行, 斗閑, 德衍, 天玉, 贊機, 万澄, 儀俊, 哲信, 哲輝, 朴守元, 淨眼, 玉明, 尙元, 眞謙, 守玄, 信行, 守空, 處敏, 先海, 德岑, 遊逢, 處訓, 敬謙, 李卞音迪, 性衍, 雪玉, 就云, 性俊, 妙謙, 武存, 敬玄, 進己, 取謙, 仁俊, 太迪, 道林, 靈心, 順海	106
壬辰 1652 58세	靈根, 斗祐, 明悟, 靈宗, 善俊, 三侃, 惟性, 建眼, 性玄, 朴山, 靈勛, 金木枕	12	壬戌 1682 28세	儀淨, 贊明, 仁學, 太玄, 毛之里, 戒宗, 法允, 學坦, 進覺, 信悟	10

1) 禪雲寺本の 河浩然 序文, 「松雲師, 奉使日本, 索是書一帙, (중략) 茲豈匪四溟師, 導源之功歟. 崔公瑞龍, 從事禪門, 願與海雲法師, 方欲鍍梓廣布, 而求余文以記之, 故不敢以書生, 眼孔之狹爲辭, 於是乎書. 崇禎後戊子五月日晉陽後人河浩然序」: 禪雲寺本の 玄益 跋文, 「昔有松雲大士, 使於日本, 袖是典而還, 剞劂而流布於天下, 其所以始本之爲功者, 豈不大哉. 噫, 法運既季而字剝板朽, 不得印傳者, 有年矣. 學者每嘆幹善之無, 其人也, 有海雲道人, 來自母岳, 持斯典, 而呈于禪刹, 曰我影此寶之鍍梓者, 久矣. (중략) 是以今此甲契鍍板之功, 廣布於天下. 崇禎後戊子五月日兜率山人玄益盥手焚香謹爲之跋」.

2) 갑계(甲契)는 갑회(甲會)라고도 하며, 임란 이후 사찰의 중창과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같은 해에 출생한 승려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일종의 사찰 공동체 조직이다. 심지어 이러한 갑계 조직을 악용하여 반란을 주도한 이몽학 등의 사례도 보이고 있으며, 조선 후기 사원의 생활양상과 경제활동의 일면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선운사 갑계자료는 연인원 479명이 참여하고 있어 현존 자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그들이 사찰의 관각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生年	名單	名數	生年	名單	名數
戊戌 1658 52세	泰岑, 印岑, 尙淳, 性眼, 石敏, 性信, 性軒, 日軒, 尙建, 鄭金, 趙東山, 張先業, 金八金	13	庚申 1680 30세	善機, 敬悅, 敬玉, 信英, 智悅, 万信	6
庚子 1660 50세	幸性, 一應, 希遠, 勝俊, 明信, 三莊, 金厚上, 孫天柱	8	甲子 1684 26세	性元, 仁遠, 思順, 坦守, 覺體, 神贊, 贊惠, 贊衍, 民遠, 印覺, 贊浩, 日民, 寶豈, 自玄, 信覺, 善哲, 卓能, 民機, 道學, 万聰, 儀暹, 敬哲, 一閑, 順立, 贊玉, 太俊, 弘定, 儀哲, 道性, 民淨, 寶民, 德宗, 信坦, 英必, 必明, 寶連, 艮乙南, 安悟, 斗閑, 印行, 得性, 靈岑, 定惠, 元洛	44
壬寅 1662 48세	李哲, 崔命金	2	戊辰 1688 22세	大興, 升眼, 次江, 全貴, 河堂金, 善侃	6
甲辰 1664 46세	會澄, 雪豈, 智蹟, 印輝, 尙訓, 敬杰, 智全, 學心, 思允, 靈日, 勝哲, 儀守, 云密, 智眼, 敏嚴	15	丙寅 1686 24세	永遠, 覺玄, 道閑, 德軒, 万英, 尙還, 順仲	7
戊申 1668 42세	會逢, 心守, 儀海, 卓仁, 守還, 金尙, 金上伊	7	甲申 1644 66세	朴一生, 覺宗, 世林, 贊雄, 覺玄, 清眼, 寶天, 學林, 寶惠, 成必, 洪凡峙, 覺心, 處益, 万仁, 取英, 卓稔, 世訓, 能海, 世迪, 尙元, 滿種, 智洽, 明歸, 卓明, 智軒, 道靈, 如尙, 天逢, 世敬, 雙日, 覺明, 坦圭, 元卜, 衍行, 李■, 卓性, 石雷, 如逢, 贊圭, 海浩, 贊儀, 道文, 贊遠, 寶云, 守澄, 弘定, 梁終子	47
庚戌 1670 40세	妙忍, 太初, 初眼, 自安, 始覺, 明策, 一行, 海林, 尙云, 自敬, 永修, 雙一, 初明, 哲玉, 卓靈, 儀亨, 信儀, 自閑, 卓敏, 永杰, 卓心, 就日, 儀玄, 太敏, 希玉, 處閑, 幸淨, 守一, 智尙, 法寬, 道岑, 性天, 奉欠, 贊益, 永素, 智先, 覺玄, 允行, 善圭, 國賓, 性梅, 道雄, 太軒	43	丙辰+ 1676 34세	宗善, 坦豈, 處宗, 座一, 法聰, 尙機, 性行, 各浩, 若閑, 太玄, 敬喜, 處學, 處默, 明察	14
戊子 1648 62세	自浩, 善戒, 信淨, 先應	4	庚子 1660 50세	德衍	1
庚寅 1650 60세	靈澤, 建方, 智豈, 先日, 善淳, 靈岑, 明學, 處云, 靈和	9	甲子 1684 26세	滿藏, 贊明, 玄贊, 敏玄, 豈信, 雪玉, 信行, 好永, 宗性, 一能, 元俊	12
甲午 1654 56세	性能, 天竺, 尙梅, 靈玄, 靈軒, 坦行, 勝敏, 自守, 日淨, 戒習, 日云, 儀密, 戒益, 印淳, 應觀	15	丙寅 1686 24세	先學	1
丙申 1656 54세	戒淨, 守日, 太雄, 雙哲, 戒淨, 崔白蓮, 性明, 性儀, 明玉, 祖仁, 覺哲, 贊云, 道草, 金生蓮, 徐伐金, 金玉灯, 朴者勇, 金云先, 白四月金, 高善, 儀下, 思忍, 天習, 守行, 崔尙德, 金業伊	26	戊辰 1688 22세	敏海	1
丙午 1666 44세	三信, 處心, 儀下, 斗善, 升益, 連遠, 處靈, 惠日, 斗性, 玄益, 哲祐, 贊敏, 智學, 守惠, 智雄, 金德周, 金壽命, 尙玉, 初行, 先戒	20	합계	479인	

〈표 1〉을 보면 1634년에 태어나 당시 나이로 76에 해당하는 ‘甲戌生’으로부터 1688년에 출생한 ‘戊辰生’까지 모두 479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갑계명단의 기술방식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甲戌甲’(76세)으로부터 시작하여 ‘庚戌甲’(40세)까지는 대체로 출생의 간지(干支) 순으로 일정하게 기입하였다가, 다시 ‘戊子甲’(62세)으로부터 ‘戊辰甲’(22세)까지는 간지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명단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丙寅甲’(24세)과 ‘甲申甲’(66세)은 전혀 일정한 체계를 찾아 볼 수 없어 처음 작성할 때는 빠져 있다가 추가한 부분이 아닌가 한다. 또한 갑계명단이 끝나고 시주질(施主秩)이 시작되고 있는데, 바로 시주질 끝부분에 병진·경자·갑자·병인·무진 출생 명단이 부기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 여백을 이용하여 추가로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간지의 표기가 잘못된 경우도 1곳이 보이는데, 병오와 임자 사이로 보이는 ‘丁戌’로 이

는 ‘丁未’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아 바로 잡아 처리하였다. 이러한 합산 처리를 거쳐 십대 단위로 통계를 작성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위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이는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32.8%를 차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당시 32세에 해당하는 戊午生이 106인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20대에서 40대가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어 청장년층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는 현상을 잘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에서 1660년대에서 1680년대에 출생한 낮은 연령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까. 특히 1678년에 출생한 무오생들은 당시 어떠한 연유로 이처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다만 당시 사회적으로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재해가 엄습하여 그 연령대에서 출가비율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뿐이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사찰에서는 간혹 보사

〈표 2〉 禪雲寺 同甲契員의 分布現況

출생년	나이	인원	비율	출생년	나이	인원	비율
갑술(1634)	76세	4	10인 2.0%	병오(1666)	44세	20	91인 19.0%
병자(1636)	74세	2		경미(1667)	43세	4	
무인(1638)	72세	4		무신(1668)	42세	7	
갑신(1644)	66세	47	65인 13.6%	경술(1670)	40세	43	157인 32.8%
병술(1646)	64세	5		임자(1672)	38세	13	
임자(1648)	62세	4		갑인(1674)	36세	18	
경인(1650)	60세	9	75인 15.6%	병진(1676)	34세	14	81인 17.0%
임진(1652)	58세	12		무오(1678)	32세	106	
갑오(1654)	56세	15		경신(1680)	30세	6	
병신(1656)	54세	26		임술(1682)	28세	10	
무술(1658)	52세	13		갑자(1684)	26세	56	
경자(1660)	50세	9		병인(1686)	24세	8	
임인(1662)	48세	2		무진(1688)	22세	7	
갑진(1664)	46세	15		합 계		479인	100%

(補寺)를 목적으로 동갑내기 승려를 중심으로
갑계를 조직하여 비용을 마련하였던 공동체문
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다만 그 목적이 건물의
증수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불서의 간행에 있
었다는 점이 주목되며, 이러한 사례는 다른 불
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이밖에 직접적으로 간행에 참여한 명단이
〈甲會助緣功德芳名秩〉 다음에 그 소임에 따
라 구분해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표로 작성

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책의 간행
에 비용을 마련한 시주자와 판각의 실무적인
과정을 수행한 계층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판각을 담당한 각수질
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앞에서 언급한 갑계명단
과 중복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갑계명단과 중복되는 인물을 별도로 표로 작성
하면 〈표 4〉와 같다.

〈표 3〉 간행 참여자 명단

所任	職銜	法名
山中大德秩	大宗師	玉岑, 心鏡, 玄益, 三侃, 明侃, 善機
	大禪師	建眼, 守一, 希遠, 靈一, 勝俊
老德秩	老德	三侃, 元海, 惟善, 三學, 哲仁, 天浩, 克玄, 學尙, 弘淨, 尙梅, 敬云, 令根, 令逢, 戒定, 太雄, 一定
通政秩	通政大夫	敬坦, 靈覺, 智輝, 敬文, 道雄, 自浩, 處定, 性梅, 性眼, 三信, 斗性
判司秩	前判司	太敬, 法眼, 大方, 國賓, 應默, 勝敏, 坦行, 一憲, 卓仁, 性儀, 太祐
施主秩		會澄, 思信, 魯芑生(兩), 石安, 靈覺, 天建, 贊云, 贊益, 崔末哲(兩)
施主秩(卷4末)		靈覺, 希暹, 碩敏, 坦豈, 斗性, 性安, 贊益, 斗先, 智尙, 聰眼, 明揖, 至蹟, 應默, 修一, 敬揖, 覺心, 元敏, 敬敏, 裴應淑, 裴祿生, 丁齋生, 學心, 妙忍, 希遠, 天悟, 太敬, 尙淳, 覺天, 哲普, 性悅, 太行, 文一, 戒玉, 覺禪, 敬熙, 太學, 清眼, 法寬, 金太上, 厚禮
三綱秩		明玉(住持), 守行(首僧), 智全(三寶), 信悅(持寺), 靈眞(記室)
緣化秩		坦學(證明), 道云(持殿), 信悟·宗一(供養主), 卓令(來往), 三信(別座), 海雲(大功徳主)
刻手秩		方揖, 斗心, 處禪, 佑祥, 重玄, 釋宗, 最謙, 朴尙敬(木手), 朴心哲(冶匠)
	권4말	性甘, 行敏, 釋宗, 尙堅, 自性, 信寶

〈표 4〉 갑계 명단과 중복인물

所任	갑계 명단과 중복인물(*괄호는 출생년도)
山中大德秩	心鏡('36), 玄益('66), 三侃('52), 善機('80) 建眼('52), 守一('70), 希遠('60), 勝俊('60)
老德秩	三侃('52), 元海('34), 惟善('34), 哲仁('38), 天浩('38), 尙梅('54), 敬云('46), 太雄('56)
通政秩	敬坦('34), 道雄('70), 自浩('48), 處定('38), 性梅('70), 性眼('58), 三信('66), 斗性('66)
判司秩	太敬('36), 國賓('70), 勝敏('54), 坦行('54), 卓仁('68), 性儀('56)
施主秩	會澄('64), 思信('78), 贊云('56), 贊益('70)
施主秩('卷4末)	希暹('74), 碩敏('58), 坦豈('76), 斗性('66), 贊益('70), 智尙('70), 明揖('78), 敬揖('74), 覺心('44), 學心('64), 妙忍('70), 希遠('60), 天悟('74), 太敬('36), 尙淳('58), 性悅('74), 清眼('44), 法寬('70)
三綱秩	明玉('56), 守行('56), 智全('64), 信悅('74, '78), 靈眞('74)
緣化秩	信悟('82), 宗一('78), 三信('66)

이상의 분석 결과로 보아 갑계의 일원으로 간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핵심 인물로는 발문을 쓴 대덕 현익(玄益)과 별좌 통정대부 삼신(三信), 그리고 대공덕주로 참여한 해운(海雲) 등을 거명할 수 있다.

그리고 권4의 맨 뒤쪽의 시주질 하단에 불서 간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한 내력이 “一板 雕該錢四兩 一丈書該錢三錢 畫該錢二錢 一板本價錢一兩”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기록은 목판 한 판을 판각하는데 4량(兩)이 들고, 본문 한 장을 쓰는데 3전, 그림 한 장을 그리는 데 2전(錢)이 지불되었다는 내용이다.³⁾ 다만 끝부분의 ‘一板本’은 지금의 1책 혹은 1질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은데, 선운사판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마도 1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이 기록은 전체 출판 중에 판각에 소요되는 구체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선운사판의 판각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⁴⁾ 이러한 판각비용을 기재한 사례는 간혹 목판의 뒷면 빈 여백에 묵서로 기록된 경우와 <간소일기(刊所日記)>가 있을 뿐, 실제 해당 목판에 새겨진 실례는 매우 보기 드문

경우이다.⁵⁾ 따라서 이 기록은 조선시대 사찰에서 판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板刻年代의 檢討

선운사판의 판각은 이십대로부터 칠십대에 이르는 불문에 출가한 동갑계원들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출하여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판각 연유를 지닌 선운사판의 간행 연대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것은 다른 사찰 본과는 다르게 선운사본의 간기는 ‘兜率山禪雲寺開板’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간행사찰만 나와 있지 정작 간행 연대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각연대를 권수의 하호연(河浩然)의 서문과 권말의 현익(玄益)이 발문을 작성한 시기를 근거로 선행의 모든 논문과 목록에 1648년으로 환산하여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의 서문과 발문을 쓴 연대를 단순히 ‘崇禎後戊子’라는 연호와 갑

3) 조선시대 화폐의 기본단위는 ‘량(兩)’이다. 이를 기준으로 1량은 10전, 1전은 10푼으로 대체하였다. 1량의 현재적 가치는 쌀값의 변동에 따라 4만원설에서 30만원설 등으로 일정하지 않은데, 한 판을 판각하는 비용이 4량으로 기재되어 있어 비교적 높은 단가를 인정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판은 전후 양면을 판각하는 경우 대략 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 당시 1량의 현재적 가치는 30만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1891년에 판각한 『성재문집(性齋文集)』의 경우 632판을 판각하는데 2148량이 지출되어 한 판 당 3.4량의 판각비가 지불된 사례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파주: 글항아리, 2013, p.238).

4) 선운사판은 모두 110판이며, 항목은 40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판각비용은 110판×4량=440량, 판서비용은 408항×3전=1224전, 판화비용은 408×2전=816전으로 총비용은 440+122.4+81.6=644량이 충당되었다. 이를 현재적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2억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출판비용은 여기에 인출과 장항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제경비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조선후기 19세기 출판에 소요된 비용을 기록한 <刊所日記>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어 전체적 간행비용을 산출하는데 참고가 된다(손계영, 2011, 조선후기 책판의 간행공간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49: 359-388). 이 논문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동아시아책판의 가치와 의미』(안동: 국학진흥원, 2012)와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파주: 글항아리, 2013)에 전제되어 있다.

자로만 기재되어 있지 숫자로 표기하지 않아 이를 서기로 환산하는데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혼란은 지난 1971년 12월 전라북도에서 이 목판을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그 사유를 “석씨원류는 조선 성종 17년(1486) 왕명에 의해 판각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으나 그 후 사명대사가 일본에 갔다가 그곳에서 얻어 가지고 인조 26년(1648) 최서용과 해운법사가 이를 대본으로 하여 복간하였다. 이때 새긴 판각이 바로 오늘날까지 선운사에 보관되어 오고 있는 석씨원류 판각이다”이라고 밝힌 이래 오류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실은 이 보고서에서 권수에 수록되어 있는 어제서문을 근거로 조선 성종 때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권수의 하호연의 서문에 보이는 최서용(崔瑞龍)과 해운(海雲) 법사가 복간한 사실과 서문의 작성 시기인 ‘崇禎後戊子’를 조선후기 인조 26(1648)년으로 환산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후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2종의 백과사전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더욱

증폭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표 5〉 참조).

상기 기사에서 소개한 성종 17(1486)년에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판본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국 명나라 성화제(成化帝)가 경태본(景泰本)을 중간하면서 쓴 서문을 조선 성종이 쓴 서문으로 오해한 것이다. 또한 선운사판의 판각시기를 하호연의 서문과 현익의 발문을 쓴 시기인 ‘崇禎後戊子’를 무심히 ‘1648년’으로 환산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에 간사(刊寫)된 고문헌 중에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연호인 ‘崇禎’을 여러 방식으로 연대를 기재하는 전통적인 관습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를 서기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 사례로 조선후기 전라도 태인 지방에서 전이채(田以采)와 박치유(朴致維)가 간행한 방각본의 간행시기를 들 수 있다. 사실 태인판 방각본(坊刻本)은 1796년에서 1806년 사이의 불과 10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것인데, 그 동안 복잡한 승정 연호를 잘 못 환산하여 무려 134년 동안에 걸쳐 이들 인명을 상호로 하여 여러 대에 걸쳐 간행되었다는 오해를 불러 왔다.⁶⁾

〈표 5〉 국내 백과사전의 『석씨원류』 항목 기사

백과사전	기사내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4호, 1468년(성종 17)에 어제로 간행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이후, 사명대사가 일본에 건너갔을 때 석씨원류 1권을 가지고 귀국하였고, 1648년(인조 26)에 최서용(崔瑞龍)·해운법사(海運法師) 등에 의해 복간되었다.
두산동아대백과사전	석씨원류는 석가의 일대기를 기록한 판각을 말한다. 선운사 석씨원류는 1486년(성종 17)에 왕명으로 새긴 것이 있었으나 1597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이후 유정(惟政:1544~1610)이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가져온 1권을 1648년(인조 26)에 최서용(崔瑞龍)과 해운(海運)이 등이 복간하였으며, 현재 영산전에 보관되어 있다.

6) 필자는 태인 방각본의 주인공인 박치유의 행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전기 자료를 발굴하여 이를 근거로 박치유의 출생 시기를 밝히고 아울러 태인판 방각본이 1796년에서 180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사실을 고증한 바 있다(宋日基, 2000, 泰仁 坊刻本の 出現時期 및 養眞居士 朴致維의 行歷考, 『古書』, 9: 9-24).

이처럼 선운사판의 판각연대를 고증하는데 있어서는 태인 방각본과 같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수년전에 앞에서 소개한 3책본 『선운사사적(禪雲寺事蹟)』을 살펴본 적 있었는데, 그때 제2책과 제3책의 중간부분에서 ‘康熙49年庚寅春釋氏源流板子刊刻 化主影波大士海雲 別座通政大夫三信’이란 기록을 보고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 기록은 간기가 ‘兜率山禪雲寺開板’라 되어 있어 간행사찰만 나와 있지 판각 연대가 없는 간기를 보완하는 결정적 자료일 것이다. 더욱이 사적기의 기록에는 선운사본의 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해운(海雲)이 화주로 통정대부 삼신(三信)이 별좌로 함께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기면에 기재된 사실과도 부합된다. 사적기에 기록된 ‘康熙49年’은 서기 1710년에 해당되므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1648년과는 62년의 연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선운사사적』에는 선운사본의 발문을 쓴 현익(玄益)이 1707년에 지은 『兜率山禪雲寺創修勝蹟記』가 수록되어 있으며, 하호연의 서문에 보이는 최서용(崔瑞龍)은 1707년에 고흥 능가사(楞伽寺)에서 간행된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의 서사(書寫) 시주자로 참여한 사실이 보이고 있어 이들이 주로 활동하였던 시기인 1710년에 판각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국립도서관 소장본에서 결정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본은 모두 4권 4책으로 전권이 유일하게 완질로 갖추어 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책의 표지에는 ‘錦海’라는 원소장자가 묵서되어 있고, 권수면에는 ‘默潭三昧’라는 장서인이 보이고 있다. 금해

는 19세기 후반 백양사 대강사를 지냈던 인물이며, 묵담은 담양 출신으로 조계종 종정을 지내고 오랫동안 전라도 담양 용화사에 거주하였던 성우(聲祐) 선사로 이들이 한 동안 소장했던 불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립본 제4책의 뒤표지의 내면지에 ‘康熙50(1711)年辛卯元月日印經施主同參戊申甲十八人也別座玄益’이란 묵서가 보이고 있는데, 이 묵서 기록으로 보아 이 책은 판각이 완료된 다음해인 1711년에 인출한 판본에 현익이 묵서한 것이 분명하다. 국립본은 이 책의 발문을 쓴 현익이 직접 인출 사실을 묵서한 판본으로 ‘戊申生’ 18인이 인출에 동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인출기를 쓴 현익은 갑계명단에 병오(丙午)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45세로 능허당(凌虛堂)의 촉망받는 대종사(大宗師)가 되어 있었다.

만약 판각연대가 1648년이 맞다면, 당시 비교적 젊은 층인 현익이 105세로 판각에 참여한 이들은 이미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선운사본 『석씨원류』의 판각 연대는 그 동안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1648년이 아닌 1710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5. 結 言

필자는 수년전에 선운사의 중창에 대한 사적을 기록한 3책본 『선운사사적』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 제2책과 제3책의 중간부분에서 ‘康熙49(1710)年庚寅春 釋氏源流板子刊刻 化主影波大士海雲 別座通政大夫三信’이란 기록을 보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1648년’이

란 판각연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선운사판의 판각 주체와 판각 시기 등에 대해 『선운사사적』과 국립도서관본의 목서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대략 다음과 새로운 사실을 고찰하였다.

첫째, 선운사본에는 〈甲會助緣功德芳名秩〉이란 동갑계원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선운사판의 판각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479인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이는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32.8%를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시 32세에 해당하는 '戊午生'이 106인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청장년층이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젊은 층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전기 사찰에서 건물의 중창 등 보사(補寺)를 목적으로 동갑내기 승려를 중심으로 갑계를 조직하여 비용을 마련하였던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외에 불서의 간행을 위해 무려 479인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매우 주목된다.

둘째, 선운사본에는 불서 판각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한 내력이 목판에 새겨져 있는데, 한 판을 판각하는데 4량(兩)이 들고, 본문 한 장의 판하본을 쓰는데 3전(錢), 그림 한 장을 그리는데 2전이 지불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을 통해 선운사판의 판각에는 현재적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2억 원 정도가 소용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조선시

대 사찰에서 판각 또는 출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판각 비용을 기재한 사례는 간혹 목판의 뒷면 빈 여백에 목서로 기록된 경우가 있을 뿐, 실제 해당 목판에 새겨진 실례는 거의 없다.

셋째, 지금까지 선운사판의 판각연대는 간기에 누락되어 있어 권수의 하호연(河浩然)의 서문과 권말의 현익(玄益)이 발문을 작성한 시기인 '崇禎後戊子'라는 기록을 근거로 선행의 모든 논문과 목록에 수정 이후 첫 번째 무자년인 '1648년'으로 환산하여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선운사사적기〉에 '康熙49(1710)年庚寅春 釋氏源流板子刊刻'라는 기록과 국립본의 '康熙50(1711)年辛卯元月日印經施主同參戊申甲十八人也別座玄益'이란 목서가 보이고 있으며, 그밖에도 간행에 참여한 해운과 현익, 그리고 최서용 등이 판각 시기인 1710년을 전후로 활동하고 있는 행적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선운사판은 분명 1710년에 판각되었는데, 문제는 이 책의 서문과 발문을 쓴 연대를 '崇禎後戊子'라는 연호와 갑자로만 기재되어 이를 서기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단순하게 생각하여 발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표적 오류 사례는 무려 130여년의 오차를 보인 태인판 방각본의 연대 환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운사판 『석씨원류』의 판각 연대는 그 동안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1648년이 아닌 1710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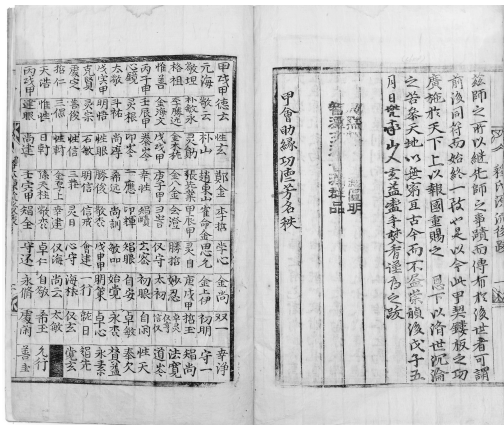
- [1] 禪雲寺事蹟.
- [2] 최연식. 1998. 朝鮮後期 釋氏源流의 수용과 佛敎界에 미친 영향. 『보조사상』, 11: 305-331.
- [3] 소재구. 2000. 禪雲寺板 釋氏源流 木板. 『미술사학지』, 3: 157-159.
- [4] 손계영. 2011. 조선후기 책판의 간행공간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49: 359-38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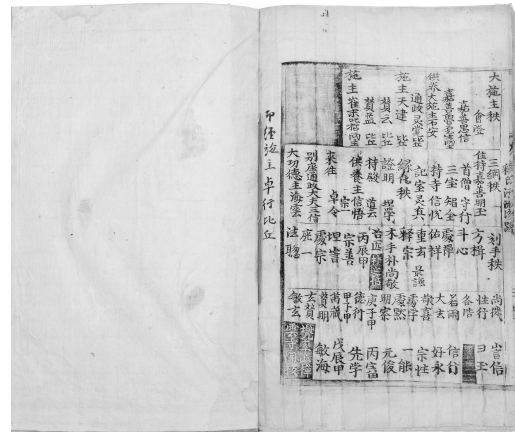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Seokssiwonryusajuk*.
- [2] Choi, Yeonsik. 1998. "The acception of Seokssiwonryu and influence on the world of Buddhism in the later Choseon dynasty." *Bojosasang*, 11: 305-331.
- [3] So, Jaegu. 2000. "The woodblock of Seokssiwonryu in Sunwoon Temple." *MisulSahakji*, 3: 157-159.
- [4] Son, Ke-young. 2011. "A Study on the Publishers and Publishing Places of Wooden Printing Blocks in the Late Joseon."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49: 359-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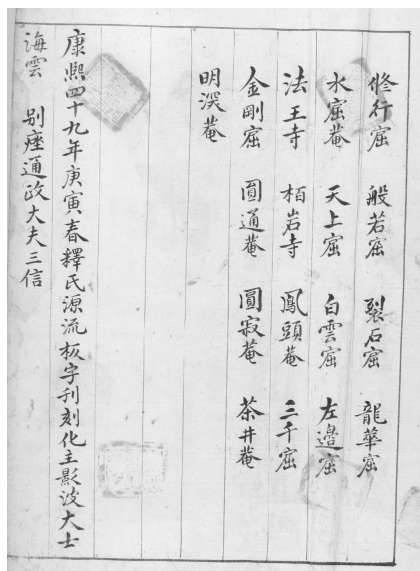
[부록]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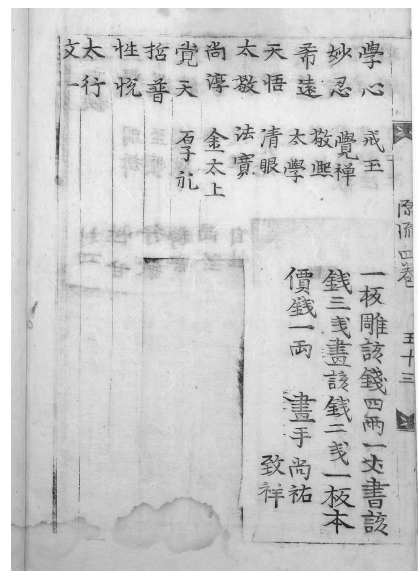
〈그림 1〉 甲會名秩



〈그림 2〉 禪雲寺本 刊記



〈그림 3〉 선운사사적의 판각기록



〈그림 4〉 비용산출 기록

